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whyeon@kiep.go.kr

현상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장
sbhyun@kiep.go.kr

박민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이효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hyojinlee@kiep.go.kr

오윤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moh@kiep.go.kr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ダイ내믹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중국 통상환경의 중요한 대외적 변화로 미·중 통상갈등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으며, 한국산 대중 수출품의 대체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중 양국 간의 1단계 무역합의의 영향 분석이 필요함.
 - 대내적 변화로는 중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이 중요함. 최근 중국의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전략은 강화되고 있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됨에 따라 한국산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 이에 본 연구는 시장, 정부 정책, 대외 환경의 변화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정량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음.
 - 국제개발학에서 활용되는 Alkire-Foster(AF) 모델을 바탕으로 Yang-Yeon(YE)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여 다차원적 대체 가능성지수(MSI: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를 도출
- ▶ YE 모델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중국 산업고도화 정책의 경우에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 장기적으로 주요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
 - 한국의 대중 수출 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공포감보다는 앞으로 다차원적 대체가능성 지수(MSI)와 같은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축한 YE 모델과 다층적 수입대체 지수(MSI)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선별하고 우리의 정책적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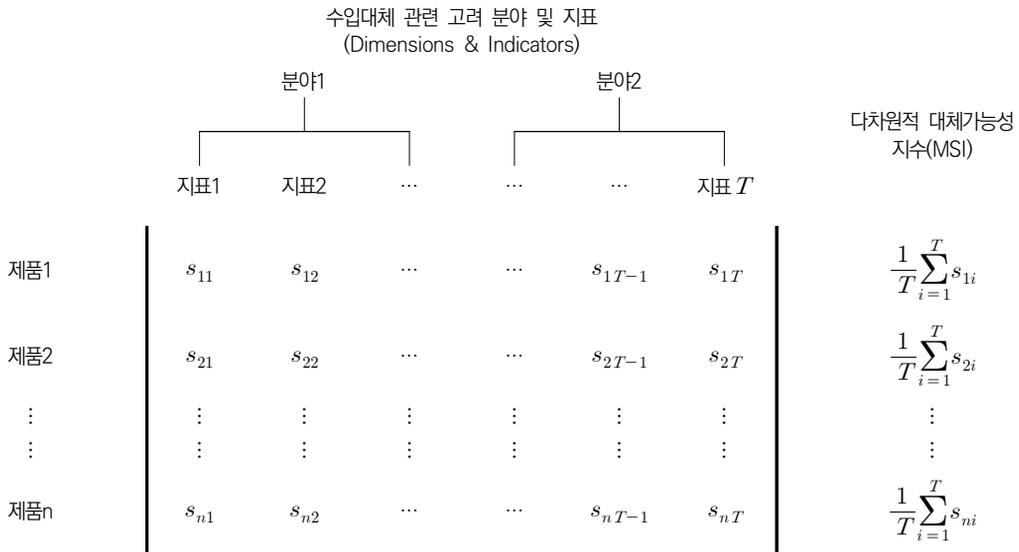
-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음.
 - 최근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은 국가간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는 미·중 통상분쟁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경험하였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이 서명한 미·중 통상 1단계 합의의 경우 중국이 향후 2년간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으로 2,000억 달러 수입을 확대하기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중국과 교역수준이 높은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신장시키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을 급속도로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세계 각국은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기지 다변화, 리쇼어링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음.
-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과 더불어 최근 중국은 내수주도 성장모형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수입품을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산업전략을 펴고 있음.
 - 2015년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수립하고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IT, 우주항공, 의료, 신소재, 에너지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해오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향후 중국은 이미 포화상태인 인프라 및 건설 투자가 아닌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도모
 - 중국정부는 「14차 5개년(2021~25) 계획」과 「2035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쌍순환(Dual Circulation)'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에 대응해 핵심기술 및 핵심부품의 독자적인 개발을 통한 중국 내 자체 산업사슬(Self-reliant Supply Chain)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임.
 -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기존의 한·중 무역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변화하는 통상환경 및 중국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제품의 대중 수출경쟁력과 대체가능성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 수출품의 경쟁력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은 수출입액 간의 상관관계만을 단차원적으로 고려하는 등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선행연구는 부재함.
 - 본 연구는 시장, 정부 정책, 대외 환경의 변화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분석 모델을 수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이는 향후 새로운 통상 이슈 발생 시 한·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모델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됨.

2. 조사 및 분석 결과

- 본 연구는 기초 연구로서 연구대상국 수출입품의 대체 가능성을 정량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
 1.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YY 모델: Yang-Yeon 모델)을 구축하고 다차원적 대체 가능성 지수(MSI: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를 도출
 2. △제3국 제품의 한국산 대중국 수출품 대체 가능성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대중국 수출품 대체 가능성을 추정하는 모델을 수립
 3. 위에서 구축한 모델을 사용하여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품의 대체 가능성¹⁾ 분석과 함께 한·중 간 무역구조 변화를 예측하여 정책 판단의 근거자료를 제공

그림 1.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n \times T$)



주: 1) s_{ij} 는 i 제품의 j 지표를 z-score로 normalize한 점수이며 i 제품의 MSI 값은 해당 제품의 s_{ij} 값은 모두 더한 후 사용된 전체 지표의 개수(T)로 나누어 계산함.
 2) MSI 값이 클수록 한국산 대중 수출품이 타국산 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큼.

1) 중국 입장에서는 수입대체 가능성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대체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대체가능성', '수입 대체 가능성', '수출대체 가능성'을 혼용하고 있으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용어만 달리 사용했을 뿐이며, 모두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타국산 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의미함.

3. 정책 제언

1) 미·중 1단계 합의의 영향 및 시사점

- 본 연구를 통해 얻은 MSI 순위에 의하면, 미·중 1단계 합의로 인한 가능성은 에너지, 농산품, 공산품 순으로 나타남(표 1 참고).
 - 일반적으로 미·중 1단계 합의 직후인 2020년 초에 발간된 보고서들은 공산품에서 대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본 보고서에서 새롭게 구축한 YY 모델은 2019년 말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줌.
 - [표 1]의 무역보완도 및 무역편향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한·중 간 무역분업구조에 기인하는 측면이 큼.
 - YY 모델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요인별 또는 제품별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decomposability), 각 제품의 지수가 어떤 요인(지표)에 의해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

표 1. 지표별 MSI 순위에 미친 영향(산업 기준)

MSI 순위	산업	TSI_{diff}	RCA_{diff}	MCA_{diff}	TIC_{KR-US}^{CH}	TBI_{KR-US}^{CH}	MSI
1	에너지	0.3243	0.1916	-0.1356	-0.1959	0.5195	0.0892
2	농산품	0.0518	0.0920	0.0100	-0.0889	-0.0610	-0.0136
3	공산품	-0.6008	-0.4158	-0.1018	-0.8130	0.0573	-0.2732

자료: YY 모델과 ITC Trade Map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 에너지 관련 제품의 경우 한국산 대중 수출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국 제품 자체의 상품 경쟁력이 높고 중국의 미국 제품에 대한 편향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우리나라 제품을 미국산 제품이 대체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농산품의 경우는 무역보완도나 무역편향도 요인보다 미국산 농산품의 대중 수출경쟁력이 한국산 농산품보다 높기 때문에 수입대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산품의 경우는 미국산 공산품이 한국산 공산품보다 상대적 경쟁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산 수출품의 중국과의 무역보완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YY 모델은 한국산 공산품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영향을 가장 덜 받을 것으로 예측
- 다른 한편으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미국산 제품으로의 수입대체 가능성이 실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YY 모델의 분석결과를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20년 한국의 대중 수출품의 71.32%를 차지하는 공산품의 수입대체 가능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표 2 참고)

표 2. 산업별 MSI 순위와 2020년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체 가능성 순위	산업	품목 수	MSI	2020년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	에너지	2	0.0892	0.69%
2	농산품	132	-0.0136	1.26%
3	공산품	295	-0.2732	71.32%

주: 비중은 금액(US\$) 기준.

자료: ITC Trade Map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 이는 한·중 간 무역이 한국 제조업체들의 대중국 투자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GVC상에서도 한·중 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 한국과 미국의 대중 수출품 간 경합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예측 결과로 보임.

- 대중 수출 비중 상위 10개 제품의 2020년도 대중 수출 비중은 51.64%로 나타나는 가운데, MSI 평균 값은 -0.4576, MSI 순위는 평균 334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이 또한 미·중 1단계 합의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줌.

표 3. 미·중 1단계 합의 품목 중 2020년 우리나라 대중 수출 상위 10개 제품의 수출비중 및 MSI

대중 수출 금액 비중		HS 4단위		MSI	MSI 순위 (429)
순위	%				
1	27.33	8542	반도체	-0.3750	308
2	4.35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0.5336	388
3	4.33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0.0140	85
4	2.78	2902	환식탄화수소	-0.5628	399
5	2.70	8529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5825	405
6	2.67	8473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0.7340	423
7	2.30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0.6263	413
8	2.13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	-0.6083	409
9	1.85	8523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0.3815	311
10	1.20	2901	비환식탄화수소	-0.1860	195
누적	51.64		평균	-0.4576	333.6

주: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지 않은 품목을 제외한 429개 제품 중 상위 10개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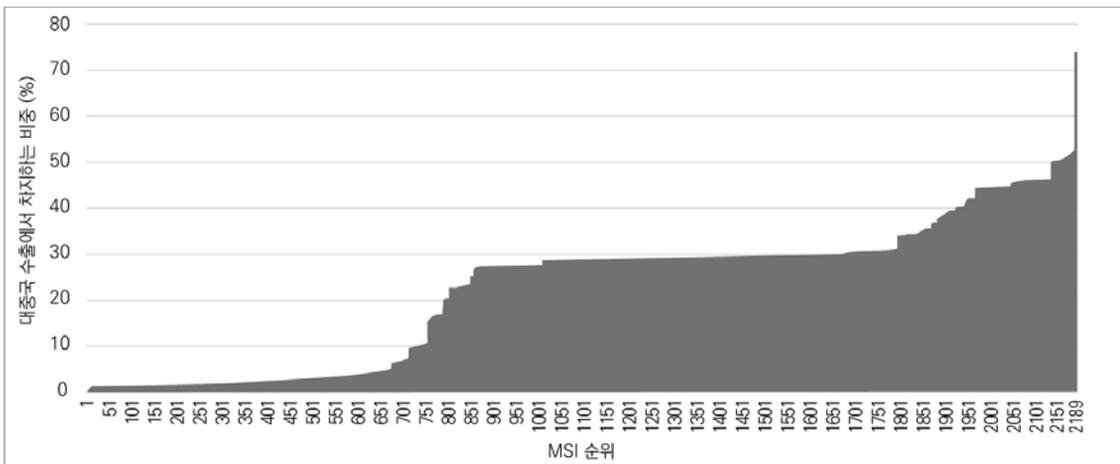
자료: YY 모델과 ITC Trade Map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

- 그러나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므로 미·중 1단계 합의와 같이 한국의 대중 수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위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대중 수출 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공포감보다는 다차원적 지수(MSI)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피해규모가 작더라도 에너지, 농산품 분야의 피해가 발생하는 측면에서 피해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필요할 것임.

2)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이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중국 산업고도화 정책은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 장기적으로 가장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YY 모델을 설정할 때, 정책 지표와 무역 데이터 중 무역 데이터 비중을 높일수록 범용 제품의 대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수준이 낮은 한국산 제품은 단기간 내 대체될 것임을 시사
 - 이보다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이나 과학기술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산업과 제품(특히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관련 제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도 대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임.
 - 위 제품의 경우 한국이 중국보다 제품 경쟁력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존재함에도 중국의 산업 육성전략 추진과 정책적 지원에 의해 예상보다 빠른 대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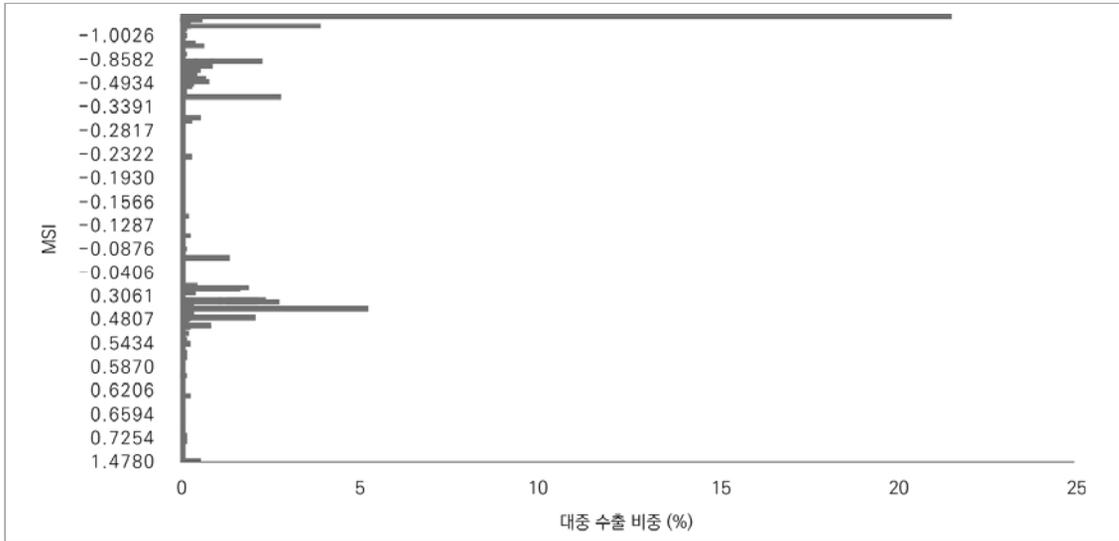
그림 1. MSI 순위별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누적, CDF)



주: 사례분석②에 포함된 2,215개 제품 중 2020년 데이터가 존재하는 2,189개 제품을 분석했으며, 이들 제품이 2020년 전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89%.

자료: YY 모델과 ITC Trade Map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

그림 2. MSI 값별 대중 수출 비중(2020년)



주: 사례분석②에 포함된 2,189개 제품의 2020년 대중 수출 비중은 73.89%.
 자료: YY 모델과 ITC Trade Map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

- 중국의 수입대체 가능성이 실제 우리나라 경제에 피해로 이어지는 피해규모를 예측해 보기 위해 각 품목 별로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YY 모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계단 식으로 CDF가 증가하는 가운데, MSI 1~700위 구간은 대중 수출 비중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MSI 701~901위 구간, 1,801~1,951위 구간, 마지막으로 2,151~2,189위 구간에서 크게 대중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그림 1 참고).
 - 이는 중국이 자국 제품으로 수입 대체할 가능성이 큰 제품 중 한국이 현재 수출하는 제품의 비중이 높지 않음을 시사함.
- 보다 구체적으로, 2020년 우리나라 대중 수출 상위 25개 제품의 대중 수출 비중(금액기준 전체 대중 수출의 54.39%)별로 MSI 순위를 보면, 대중 수출 상위 25개 제품의 MSI 순위가 대체적으로 701~901 위 구간(MSI=0.4 주변), 1,801~1,951위 구간(MSI=-0.4 주변), 2,151~2,189위(MSI<-1.0) 구간 사이에서 많이 나타남(그림 2 참고).
 -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MSI 순위는 연구대상 전체 2,189개 제품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186위에 불과
 - 이러한 경향은 대중 수출 상위 25개 제품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대중 수출 상위 25개 제품이 전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39%인 반면, MSI 값은 평균 -0.2062, MSI 순위는 평균 1,335위에 불과했음.

- 중국이 자국 제품으로 수입 대체할 가능성이 큰 제품 중 한국이 현재 중국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비중은 대체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이들 제품 중 중국이 자국산으로 수입 대체할 가능성이 큰 제품도 확인되었는데, 2020년 우리가 중국에 약 6.3억 달러를 수출한 리튬이온 배터리와 6.2억 달러를 수출한 LED 반도체(HS 854140)의 경우는 MSI 순위가 각각 8위 및 7위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해 보임(표 4 참고).

표 4.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과 2020년 우리나라 대중 수출 상위 25개 제품의 수출비중 및 MSI

대중 수출 금액 비중		HS 6단위		MSI	MSI 순위 (2,189)
순위	%				
1	21.40	854232	메모리 반도체	-1.8034	2,186
2	5.11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0.4267	755
3	3.77	271019	석유와 역청유, 기타	-1.0811	2,135
4	2.70	852990	각종 안테나, 기타	-0.4013	1,795
5	2.66	847330	제8471호에 ²⁾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3643	789
6	2.26	901380	그 밖의 기기 ³⁾	0.3369	802
7	2.20	290243	파라-크실렌(p-xylene)	-0.8410	1,966
8	2.00	851770	부분품 ⁴⁾	0.4693	713
9	1.77	852351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0.1255	857
10	1.54	90132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0.1763	848
11	1.25	90012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0.0762	1,008
12	0.77	290122	프로펜(프로필렌)	-0.7893	1,943
13	0.75	854239	반도체, 기타	0.4927	674
14	0.71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0.5170	1,869
15	0.66	847989	기타 ⁵⁾	0.3715	788
16	0.62	390210	폴리프로필렌	-0.5595	1,885
17	0.5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0.9644	2,044
18	0.55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0.8014	1,950
19	0.51	271320	석유역청(瀝青)	-1.2593	2,167
20	0.47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1.0832	8
21	0.47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LED)	1.2755	7
22	0.44	39013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0.7237	1,921
23	0.43	390740	폴리카보네이트	-0.3136	1,689
24	0.41	853890	기타 ⁶⁾	0.4900	677
25	0.39	290121	에틸렌	-0.6356	1,906
누적	54.39	평균		-0.2062	1,335

주: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지 않은 품목을 제외한 429개 제품 중 상위 10개 제품.

자료: YY 모델과 ITC Trade Map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

- 중국 산업고도화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한·중 간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것임.
-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할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에서 다층적 수입대체 지수(MSI)를 활용하여 정책적 지원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KIEP**

-
- 2)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5호의 송신용·수신용기기는 제외).
 - 5) 8479: 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6) 8538: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 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